



21일 오후 2시께 시범단절시설인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전기공급이 끊기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주민들을 구조하는 기상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희국 교육감 오늘 소환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에 선거 대행을 맡긴 장희국 광주지교육감에게 22일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CNC의 하위 견적서와 이에 따른 선거비 과다 계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CN커뮤니케이션즈가 하위 견적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최소 6000만원 이상의 선거비를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선거전략 컨설팅 비용 등을

선관위가 보전해주는 항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선거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상당한 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 시교육감에 이어 다음주에는 CNC 층 관계자, CNC 거래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CNC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시교육감 측은 “선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며 부풀리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교육 명문중 폐교

광주지법, 원고 기각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1일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 인정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는 정규 교육

박주선 징역 1년·유태명 2년 구형

광주지검, 동구 불법선거

전직 동구 투신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태명(68)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는

징역 3년,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

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53)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의회 남모(여·56) 의원은 징역 1년6월,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여·54)씨는 징역 10월, 박모(57)씨 등 비상대책 위원회 관계자 11명은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

하도록 보좌관 이씨 등에게 지시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유 청장과 공동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30분께 화순 도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과 유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며, 박 의원과 유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별금 100만원 이 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악질 성폭행 범 꼭 잡는다” 인터폴 수사 요청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친구와 함께 성폭행하고 홍콩으로 달아난

여행사 가이드를 불잡기 위해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1일 윤도(27)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달

아난 공범 오모(43)씨를 같은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A(여·25)씨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또 윤씨 등은 성폭행 장면을 허

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최근 홍콩으로 도파한 오씨를 불잡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오씨의 외모와 별명이 유명 개그맨과 비슷해 이번 사건에 연예인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혼란도 있었다.

/김현경기자 kki@kwangju.co.kr

건축허가 소송 패소

이마트, 불복 항소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이마트(본부 6월 15 일자 6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지난 14일 주식회사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건축허가는 판매시설동과 균린생활시설동이 별개의 건물이라는 전제 아래 허가가 이뤄졌으나 두 건물의 구조, 기능, 형태 등에 비춰 볼 때 하나의 건물을 인정된다”며 “이 경우 건물이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 등에 위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허가가 건축주의 사실은 폐 및 기타 허위의 방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질서 유지와 회복이라는 공익이 이마트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아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허가 변경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침 (8593)



통학버스-승용차 충돌

21일 오전 8시34분께 강진군 병연면 병영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강진교육청 통학버스가 승용차와 부딪치고 나서 길에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씨, 버스 운전사 김모(58岁),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강진 고교생 12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인근 장흥종합병원과 강진의료원, 장흥우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DNA 때문에 5년전 성추행 틀통나

○…20대 청년이 찾은 범죄행각으로 지난해 대검찰청에 5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 당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경찰서행.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친권 배달을 하고 있는 이모(20)씨는 지난 2007년 당시 광주 북구 운암동 모 태권도장 2층 계단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17)양을 마구 때리고 강제 추행했다는 것.

○…경찰은 2007년 수사팀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이씨 징역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대검찰청 수형자 DNA와 대조한 끝에 최근 출소한 이씨를 검거.

/김현경기자 bigkim@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막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증(물 흙),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짐증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혈생의 경우 기력이 나빠져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막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 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다.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짐증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기능 향상에 대한 혜택이 있다. 유근피는 2004년까지 200여 가지의 약재가 기여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는 치료하는 약은 주재료인 찬느릅나무 껌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드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멎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찬느릅나무 뿐만 아니라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증-473호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흘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봉고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도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이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고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뿐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묘시는 장례법

소장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진 자연환경과 천자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묘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